

亞문화전당 車에 덮이니

내부주차장 6배 확장...‘차없는 거리’ 등 금남로 프로젝트 무산 위기

예산처 “돈 많이 듣다”...외곽주차장 백지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주차면적 이 계획보다 대폭 증가해 전당 주변을 ‘차없는 거리’ ‘보행자 공원’으로 만들려는 광주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문광부는 당초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을 100대 규모로 조성, 필수 차량의 통행만을 허용하는 대신 문화전당에서 1~2km정도 떨어진 곳에 외곽주차장 4~5곳을 만들어 일반 차량을 분산 처리해 궁극적으로 문화전당 광장과 금남로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전당 기본설계에는 전당 외곽주차장 조성 계획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전당 내부주차장이 100대에서 600대 규모로 대폭 늘어, 전당 주변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전당 건립 공동용역기관 (KSWA·삼우·화립) 주관으로 최근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전당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설계자인 우규승씨는 문화전당 현상안(당선작)과 설계안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 규모가 100대에서 600대로 커졌다고 밝혔다.

/채희증기자 chae@

■ 광주~서울 대중교통 운임	
고속버스	1만3,900원→1만5,000원
시외버스 (광주~목포)	8,200원→ 9,000원
KTX	3만8,700원→3만9,900원
새마을호	2만9,700원→3만3,300원
무궁화호	2만원 →2만2,400원

원으로, 우등고속은 72,890원에서 78,21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시외 10.6% ↑ 고속 7.3% ↑ KTX 3% ↑ 무궁화호 12% ↑
버스·철도 요금 줄줄이 인상

건설교통부는 8일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 상한을 조정해 시외버스는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하고 철도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버스의 km당 요금은 시외버스는 83.68원에서 92.55원으로 오르고 고속버스(1~200km 구간)는 일반고속이 49.87원에서 53.51

원으로, 우등고속은 72,890원에서 78,21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소금밭...폭염이 반갑다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산지인 신안군 도서지역은 폭염이 반갑기만 하다. 단일 염전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140만평)인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도 한여름 소금 수확이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文카드’ 접고 법무장관 김성호씨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중앙인사위원회 권오룡씨

盧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새 법무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을, 사의를 표명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후임에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박남준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다.

〈관련기사·프로필 4·5면〉

노 대통령은 또 행자부 제1차관에 최양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을, 문화관광부 차관에 박양우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내정하는 등 12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농림부 차관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해양수산부 차관에 이은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기획예산처 차관에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분

용실장이 발탁됐다.

통계청장에는 김대유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공사, 병무청장에 강광식 전 육군 포병학교 교장, 방위사업청장에 이선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 권동욱 해양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김병배 공정거래위 경쟁국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유영렬 송실대 대학원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김홍남 국립민

속박물관관장이 기용됐다.
박남준 청와대 인사수석은 법무장관 인선 과정과 관련, “후보였던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논의과정에서 우선 본인이 고사했고, 일부에서 ‘설득해서 한번 인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성호 사무처장과 청와대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김 처장의 장관 기용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도 김처장을 기용하도록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는 해양경찰청장에 지금까지 경찰청 소속 치안감 출신이 승진, 발탁돼온 관행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해양경찰 출신인 권동욱 차장이 승진, 기용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기관 5만4000명 정규직 전환

黨政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2,751억 추가 소요”

정부는 8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천여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수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간접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비정규직 31만2천명 중 5만4천여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천명 중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자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차별요인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천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쳐우개선(1천152억원) 등 2천751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한 달 역사문화여행
수려한 자연재생 숲과 함께 즐기는 일본여행!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8월 28일~31일(3박4일) ■ 일본여행 전문여행사 ■ 여행모임: 3박4일 여행, 3박4일 여행, 3박4일 여행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